

대행 스님

좋고 잘해 주는 것만이 자비가 아니고 죽이고 살리는 게 전부 자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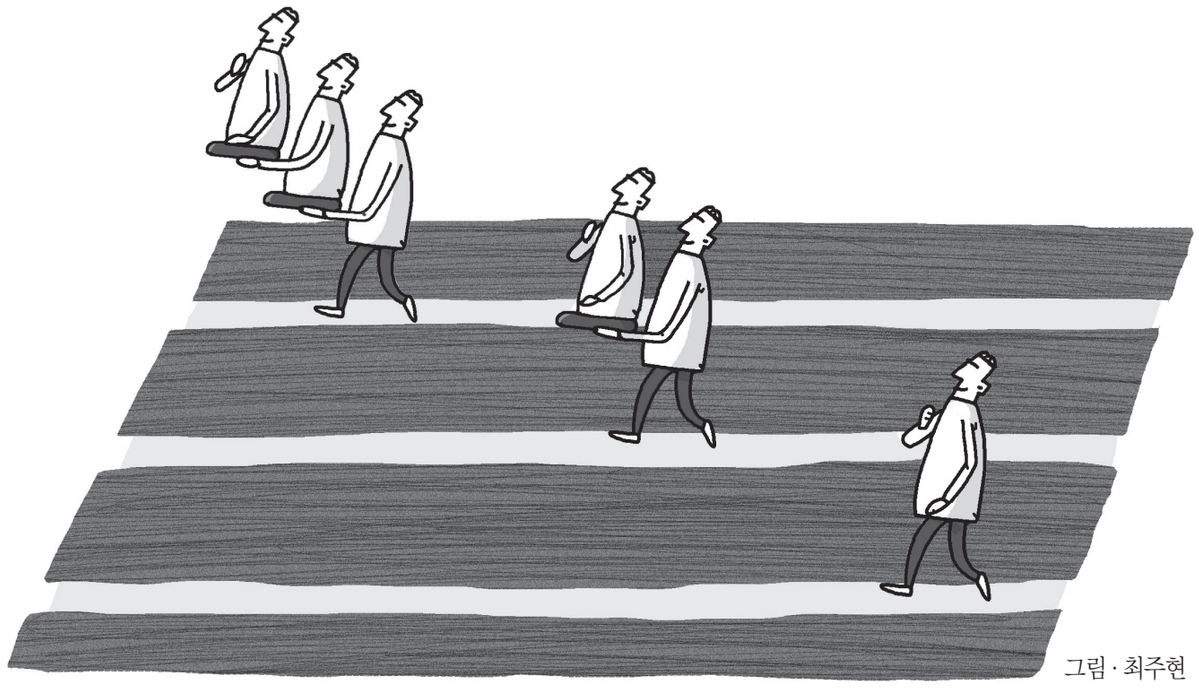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위에서부터 내려서, 우리가 지금 현대의 시점에서 용어나 모든 것은 자세히 모르지만 현대적으로 알 수 있어야만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부처님이 그때 시절에 말씀해 놓으신 것이 뜻이 다 같고 법도 다 같고, 우리 살아나가는 것도 부처님 법이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런 관계상 현재에 그것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듣지 않고 먹어 보지 않고 보지 않는다면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 겁니다. 일으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것이 본래 그대로가 참선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응용되고 감응이 되고, 우리는 항상 부지런히 뛰면서도 참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앉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섰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앉고 서는 건 자동적으로 자유자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이 지구라는 자체도, 반복해서 자세히 좀 거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근본 자체의 불성이나 지구의 근본 자리 그 자리가, 자석으로서 뭉쳐진 그 한 덩어리가 소천세계, 중천세계에서부터, 즉 말하자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천, 상천, 중천인데 이게 지금 중천 우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천세계 이 모두가 몇 번째…, 지금 내가 임신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이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질로 보는 거하고 물질로 움죽거리는 거하고 무(無)의, 사무(四無)의 자동 능력으로 이것이 움죽거리는 거하고….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면 내가 이걸 짓겠다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짓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했으면 바로 집을 짓게끔 들어가는 것이 세 다리를 거쳐서 집이 되는 겁니다. 집을 짓겠다고 하고 완성해 놓는 데는 네 다리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의 근본 자체가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있다면 무중력 상태에서 세파를 거치면서 돌아서, 이게 돌 자석이기 때문에, 자석이라는 건 뭘 뜻하느냐 하면 금석과 더불어 이 철근이 전부 한데 합쳐져서 구워져 가지곤 다시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붙어 돌아가는 문제도 역시, 그게 한데 붙어서 거기에서는 근본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이런 문젭니다. 그러면 그 근본의 문제…, 근본은 즉 말하자면 사무, 자동력. 부동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무 부동력, 사유 부동력, 이것이 한데 합쳐진 바로 '심력'이라고 봅니다.

그건 왜? 이것이 부동력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한, 이 생각이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지 죽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다 갖춰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력이라고 했고 무 부동력이라고 했고, 사유 부동력, 이것은 발전을 하려는 그런 계시가 지금 있는 것이죠. 이것을 능히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양면을 다 가지고 부동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한 계단 없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지구 상태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요 근본 자릴 놔 놓고선 요기 하나 둘, 삼겹살처럼. 그러면 왜 삼 겹 살이라고 얘길 했는가? 요기는 철이 들었다면 요기는 바로 동해서 같이 이것이, 즉 말하자면 금속이 들었고, 금속이 아니라 금속과 금속, 이것이 보통 같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 세세히 이렇게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세히 들어 있는데 이 세 층 가운데에 세 개의 계층이 이렇게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자체가 삼 겹 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 겹 살은 삼 겹 살인데 바로 자기한테 삼 겹 살이 다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근본처에 다 붙어 있다는 얘깁니다. 근데 이 삼 겹 살에서 무엇을 운영하느냐는 얘깁니다.

이것이 일 단계에서는 그 근본에서 떠나서, 전자 자동력, 즉 말하자면 전자 자동기 또는 무전통신기, 지금 현대 말로. 이 무전통신기하고 전자 자동기하고 이것이 한데 합쳐서, 여기도 사무 사유가 들어갑니다마는 이것을 포함해서, 즉 말하자면 오동, 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오동력. 동, 한데 합쳐서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나는 시체 이름도 모르지만, 이 이름도 저 이름도 다 떠나서 우리가 이해만 하면 돼요. 오동 자동기. 자동력! 그럼 오동 자동력이라면 그냥 그렇게 같이 합해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 이것은, 즉 말하자면 자력, 각이라고 할까? 자동력은 언제나 거기 떠나지 않아요, 어디든지. 또는 정각, 력. 즉 말하자면 '정각력' 하는 건 똑바로 인도하는 그런 이치죠? 정각력, 천안력, 천이력, 또는 타심력, 숙명력, 신족력을 거기에서 통력을 해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단계. 근본을 놔두고 일 단계, 여기 이 단계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력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단계는, 내가 어저께 뱃가죽같이 그렇다고 그랬죠? 아주 가죽이 그렇게 두껍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 그 단계에서는 촉각, 즉 말하자면 지각으로부터 촉각으로부터 감각으로부터 또는 식각으로부터 또는 청각, 아니 저, 뭡니까. 자꾸 말하다가도 잊어버려서. 내가 뭐라 그랬죠? 지각, 감각, 촉각, 식각, 청각, 이 청각이라는 건 아주 초를 다투어서 여부없이 깨끗하게, 우리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얘깁니다. 이 다섯 가지의 문제가 거론되고 돌아가죠.

이 다섯 가지의 문제가 거론되는데, 여기에서 이 다섯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지각적으로 이게 통합이 되는 겁니다, 지각으로. 통합이 돼서 이것을 발휘하는 데는 들이고 내고 하는 능력만 자석으로서 돼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일 단계에서 얘기했듯이 거기는 자동무전기, 전자 자동기, 참! 자꾸 말이 헤매 가네. 그리고 무전통신기, 이것이 붙어 돌아갑니다. 이건 처음이나 여기나 똑같이 돌아가면서 행하는 거니까 이것이 같이 돌아가면서 이 위에서 맨 밑으로 내려옵니다. 일 단계로 내려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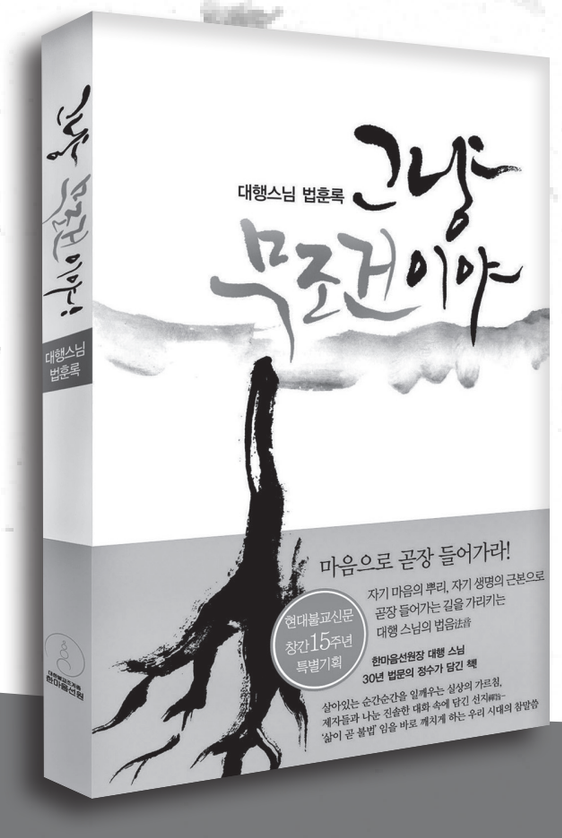
일 단계에서 이 근본에게 자꾸 이것이, 즉 말하자면 하루에, 우리가 일 초에 한 번이라고 한다면 백 년이 될 수도 있고 천 년이 될 수도 있고, 삼백 년이 될 수도 있고 삼천 년이 될 수도 있고, 삼만 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비벼 돌아갑니다. 한번 탁 쳤다 하면 이것은, 즉 말하자면 자동기로서, 전자 자동기로서 이것이 불이 나게 돼 있습니다. 불이 나게 되면 여기에서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온통 이것이 그냥, 그 뜨거운 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불덩어리죠.

그러면 그 온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층이 이렇게 삼 층이 있다면 그리로, 요새 우리 저 아래서 기름을 때는데 밑에서 때면 위층까지 올라가죠? 허허허…. 그런데 그거와 같은데도, 그거와는 조금 달리, 여기에서 비벼서 큰 불덩어리가 이글이글한 그것이 피게 되면 공기라는 그 자체가 오른단 말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기서 전자 자동기로서 또는 무전통신기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것이 그 역할을 해서, 즉 말하자면 동맥 정맥이 오르고 내리듯이 올리면, 언제든지 뜨거운 걸 올리면 찬 게 내려오고 또 찬 것이 뜨겁게 돼서 올라가면 또 찬 게 내려오고, 정맥 동맥이 오르고 내리듯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위층 옥상에서 사는 사람도 생명을 이루고 이렇게 움죽거리고 살 수 있게끔 되는 원인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맨 끄트머리에 아까 지각으로부터 그렇게 모든 것을 조립해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거기에서 오르는 압력 때문에 그 위에서는 누르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야. 너무 이렇게 발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음 자체의 능력, 그리고 또 무중력으로서 우리는 근본을 가지고 있고, 또는 이 땅이 생긴 원인, 물이 생긴 원인 그런 것도 다…. 거기에서 우리 이런 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죠. 퇴비를 재는데 속에서는 뜨겁게 삭아서 가스가 나오지만 겉으로는 그게 삭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삭지 않는 것은 삭지 않는 것대로 위에 그냥 있다는 얘기죠. 속에서만 그렇게 되지. 그러면 속에서 또 발산돼서 나오는 원인이, 이 흙이 몰쳐졌다는 얘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